

[KWDI 기획보도자료]

※ 이 자료는 **2010년 6월 30일(수)**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패널센터에 있으니 사용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15회 여성주간 기념 기획보도자료

OECD 주요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일과 건강

2010. 6. 30

작성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통계·패널센터장(02-3156-7178)

기획 및 홍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정보팀 황애리(02- 3156- 729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기획배경

한국 여성, 지금 그들은 잘 살아가고 있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7월 1일 제15회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한국 여성의 삶을 국제적 수준에서 조망해 보고자, OECD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여성의 일과 건강에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자료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사회 여성 삶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 차

I . 한국 여성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4

- 95년부터 15-64세 한국 여성의 절반 이상은 취업 중
- 한국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 일본 등과 함께 가장 낮아
- 20대 후반 한국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30대와 40대 초반은 낮아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지난 10년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커
- 한국 여성과 남성 통근 시간, OECD 국가 중 가장 길어

II . 한국 여성은 건강한가?15

-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평균 보다 길어
- 한국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은 증가, OECD 회원국은 감소
-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높고, 증가하는 중
- 한국의 제왕절개율,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해

I. 한국 여성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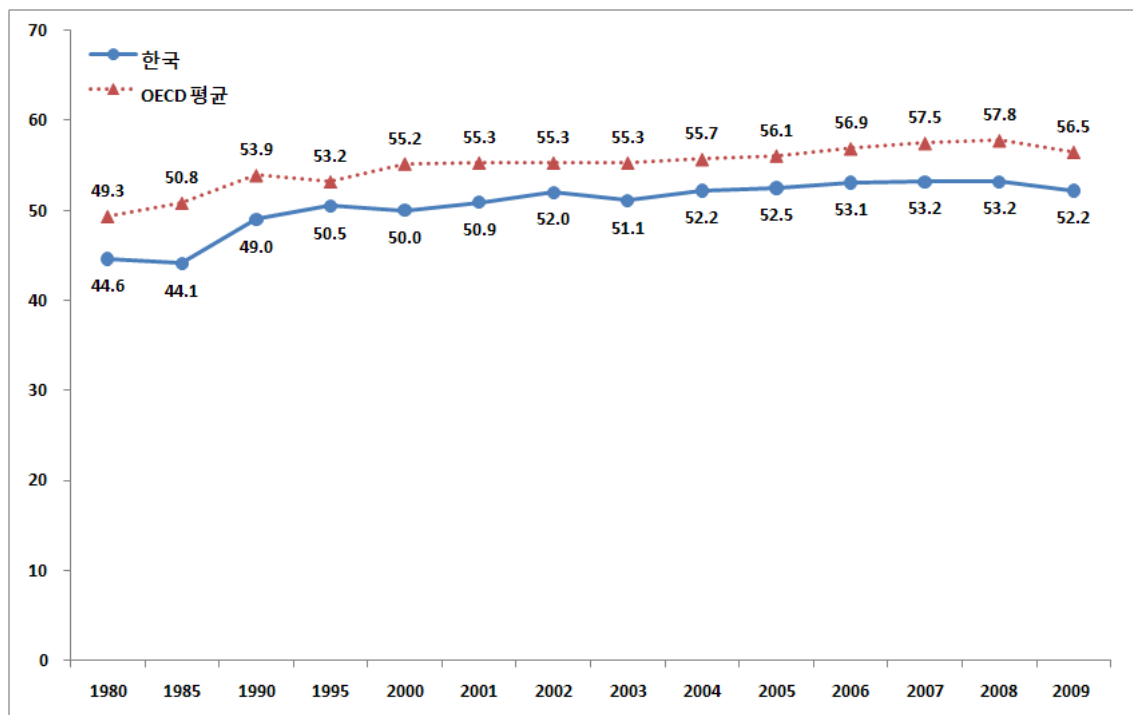
○ 95년부터 15-64세 한국 여성의 절반 이상은 취업 중

1980년 44.6%였던 1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1995년 50.5%로 증가하였음. 이후 2000년과 2003년 일시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15-64세 한국 여성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53.2%로 나타났음. 그리고 2009년 1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52.2%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1980년 44.6%에 비해 7.6%p 증가한 것임.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15-64세 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49.3%에서 56.5%로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낮게 나타남. 2009년 현재 한국에 비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이 낮은 OECD 회원국은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 5개 국가임. 그리고 폴란드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에 비해 1.5배 높은 77.2%로 나타남.

<그림 1> 한국 15-64세 여성의 고용률 변화: 198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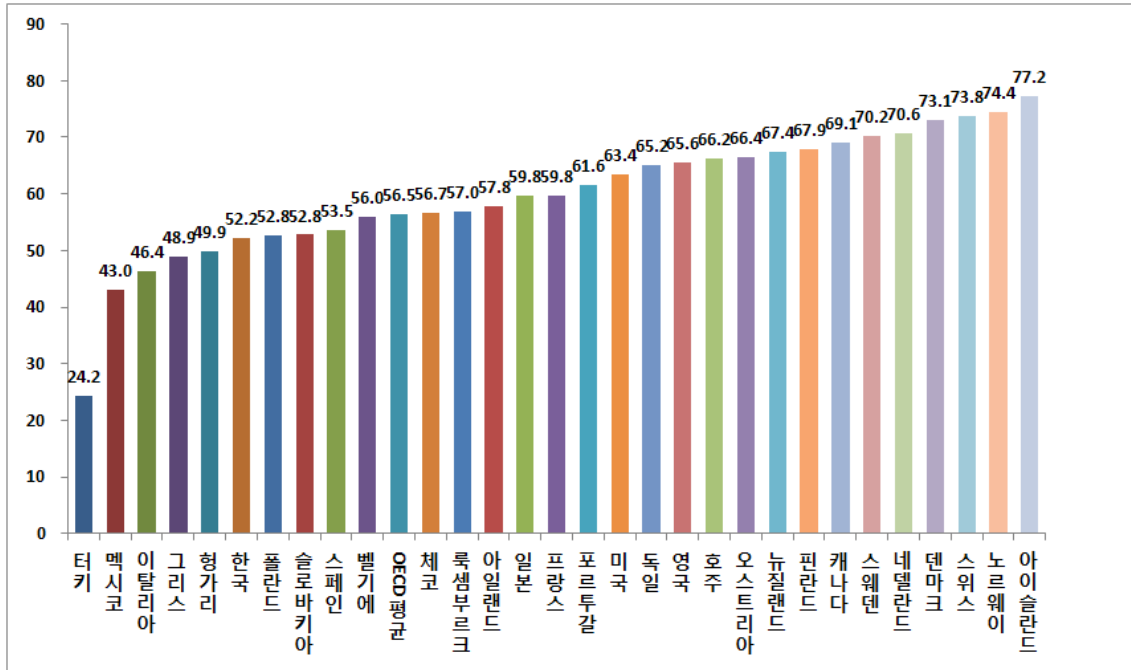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그림 2> 2009년 OECD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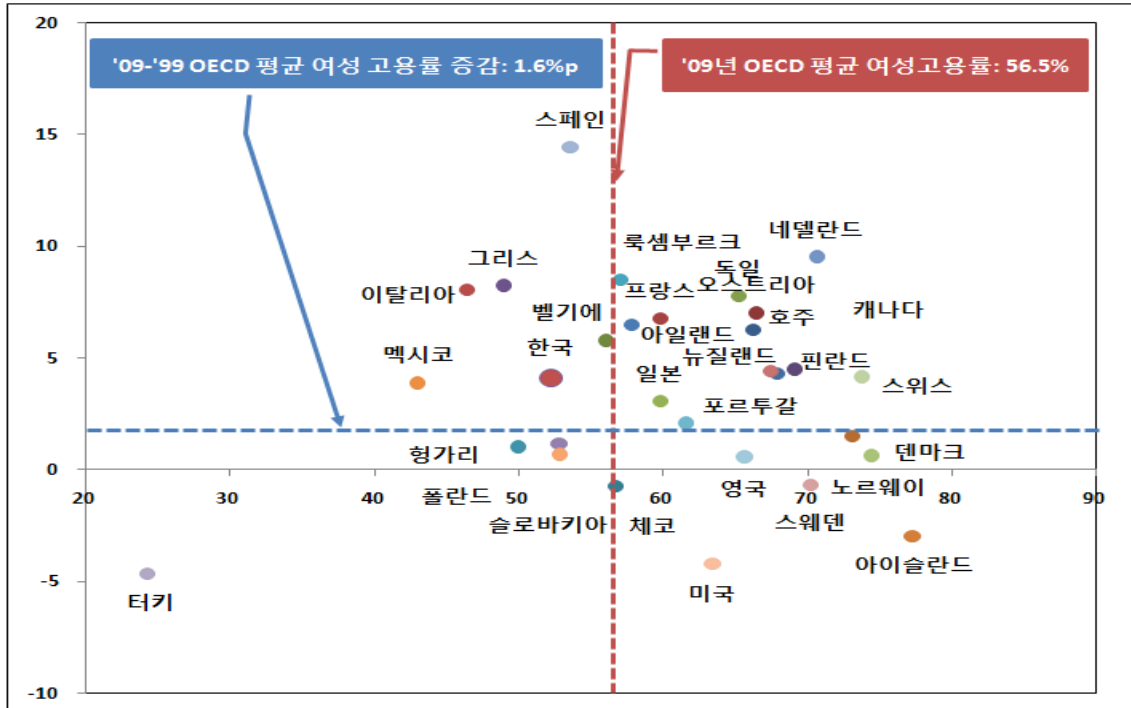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이것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의미함. 한국은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였으나, 2009년 여성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국가군에 속함. 그러나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호주, 스위스 등은 지난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 동시에 2009년 여성 고용률도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국가군에 속함.

한국의 고용률 성별 격차는 OECD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09년 현재 한국의 15-64세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4%p로 나타남. 이것은 2009년 OECD 회원국 고용률 성별 격차 16.7%p에 비해 4.7%p 높은 것임. 또한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은 핀란드에 비해 21배 이상 높은 것임.

<그림 3> 2009년 한국 여성의 고용률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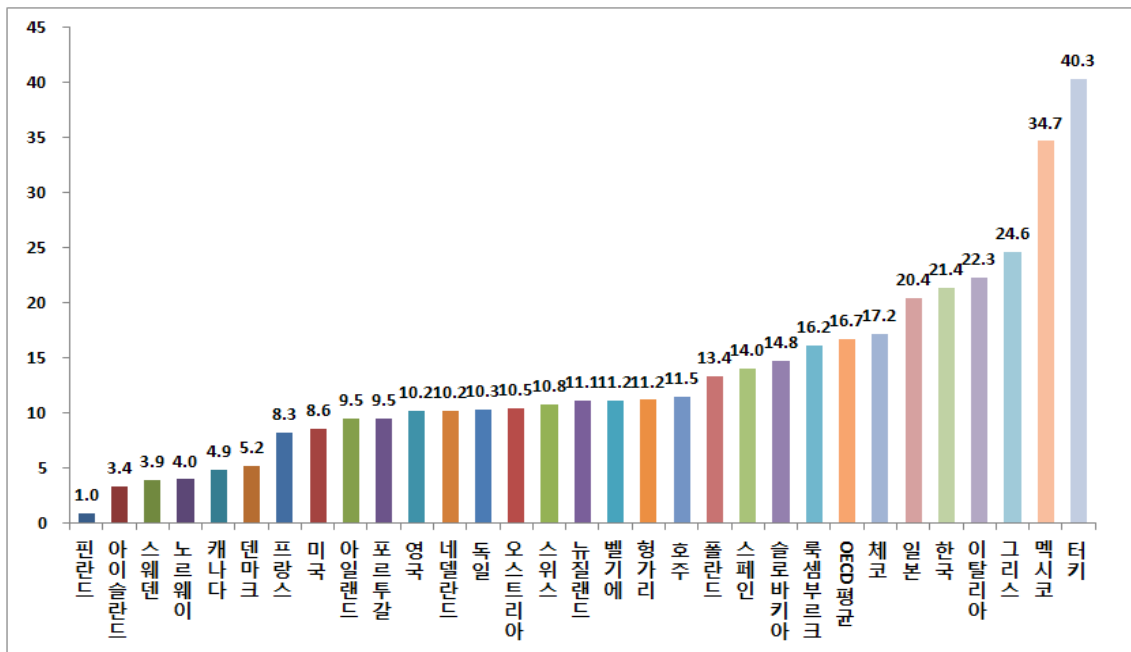
(단위: %, %p)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그림 4> 2009년 OECD국가 고용률의 성별 격차

(단위: %p)



주: 성별 격차=남성 고용률-여성 고용률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표 1> 2009년 OECD 국가 15-64세 남녀 고용률

(단위: %, %p)

	여성	남성	성별격차
호주	66.2	77.7	11.5
오스트리아	66.4	76.9	10.5
벨기에	56.0	67.2	11.2
캐나다	69.1	74.0	4.9
체코	56.7	73.8	17.2
덴마크	73.1	78.3	5.2
핀란드	67.9	68.9	1.0
프랑스	59.8	68.0	8.3
독일	65.2	75.5	10.3
그리스	48.9	73.5	24.6
헝가리	49.9	61.1	11.2
아이슬란드	77.2	80.6	3.4
아일랜드	57.8	67.3	9.5
이탈리아	46.4	68.6	22.3
일본	59.8	80.2	20.4
한국	52.2	73.6	21.4
룩셈부르크	57.0	73.2	16.2
멕시코	43.0	77.7	34.7
네델란드	70.6	80.8	10.2
뉴질랜드	67.4	78.6	11.1
노르웨이	74.4	78.4	4.0
폴란드	52.8	66.1	13.4
포르투갈	61.6	71.1	9.5
슬로바키아	52.8	67.6	14.8
스페인	53.5	67.5	14.0
스웨덴	70.2	74.1	3.9
스위스	73.8	84.5	10.8
터키	24.2	64.6	40.3
영국	65.6	75.7	10.2
미국	63.4	72.0	8.6
OECD 평균	56.5	73.2	16.7

주: 성별 격차=남성 고용률-여성 고용률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 한국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 일본 등과 함께 가장 낮아

- 한국의 '07년 25-64세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61.2%, OECD 회원국은 79.5%

2007년 현재 현재 OECD 국가 25-64세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79.5%로 나타남.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5%로 나타남. 25-64세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8.8%), 스웨덴(88.0%), 영국(8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한국은 터키(63.5%), 일본(66.1%)과 함께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61.2%로 나타났음. 이외에도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그리스 등의 25-64세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1997년과 2007년 사이 한국의 25-64세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3.8%p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스페인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67.4%에서 79.7%로 12.3%p 증가하였음. 반면 이탈리아, 헝가리, 미국,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 등은 같은 기간 25-64세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일본, 멕시코, 그리스,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 고학력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군에 속함. 반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지난 10년간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성 고용률 수준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p)



(단위: %, %p)

- 9 -

폴란드	83.9	81.7	-2.2
포르투갈	87.1 ¹	83.7	-3.4
슬로바키아	86.9	79.0	-7.9
스페인	67.4	79.7	12.3
스웨덴	84.9	88.0	3.0
스위스	78.7	83.9	5.2
터키	71.3	63.5	-7.8
영국	84.4	85.8	1.5
미국	80.9	78.1	-2.8
OECD 평균	77.6	79.5	1.4

주 1. 덴마크,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1998년 통계를 이용함.

2. 룩셈부르크는 1997년 통계를 이용함.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09.

○ 20대 후반 한국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30대와 40대 초반은 낮아

– '09년 30대 초반 여성 고용율, 한국은 50.1% OECD 회원국은 62.9%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25-29세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러나 2005년부터 20대 후반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65.6%로 나타남. 이것은 OECD 평균에 비해 2.2%p 높은 것임.

반면 30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0%대로 60%대인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0-3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000-2005년까지 40%대 후반이었으나, 2006년부터 50%대에 진입하였음. 2009년 현재 30-34세 한국 여성 고용률은 50.1%로 나타났음. 이것은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 62.9%에 비해 12.8%p 낮은 것임.

35-39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소폭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50%대 후반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2009년 30대 후반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4.9%로 전년에 비해 2.5%p 감소하였음. 그리고 2009년 한국의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9.6%p 낮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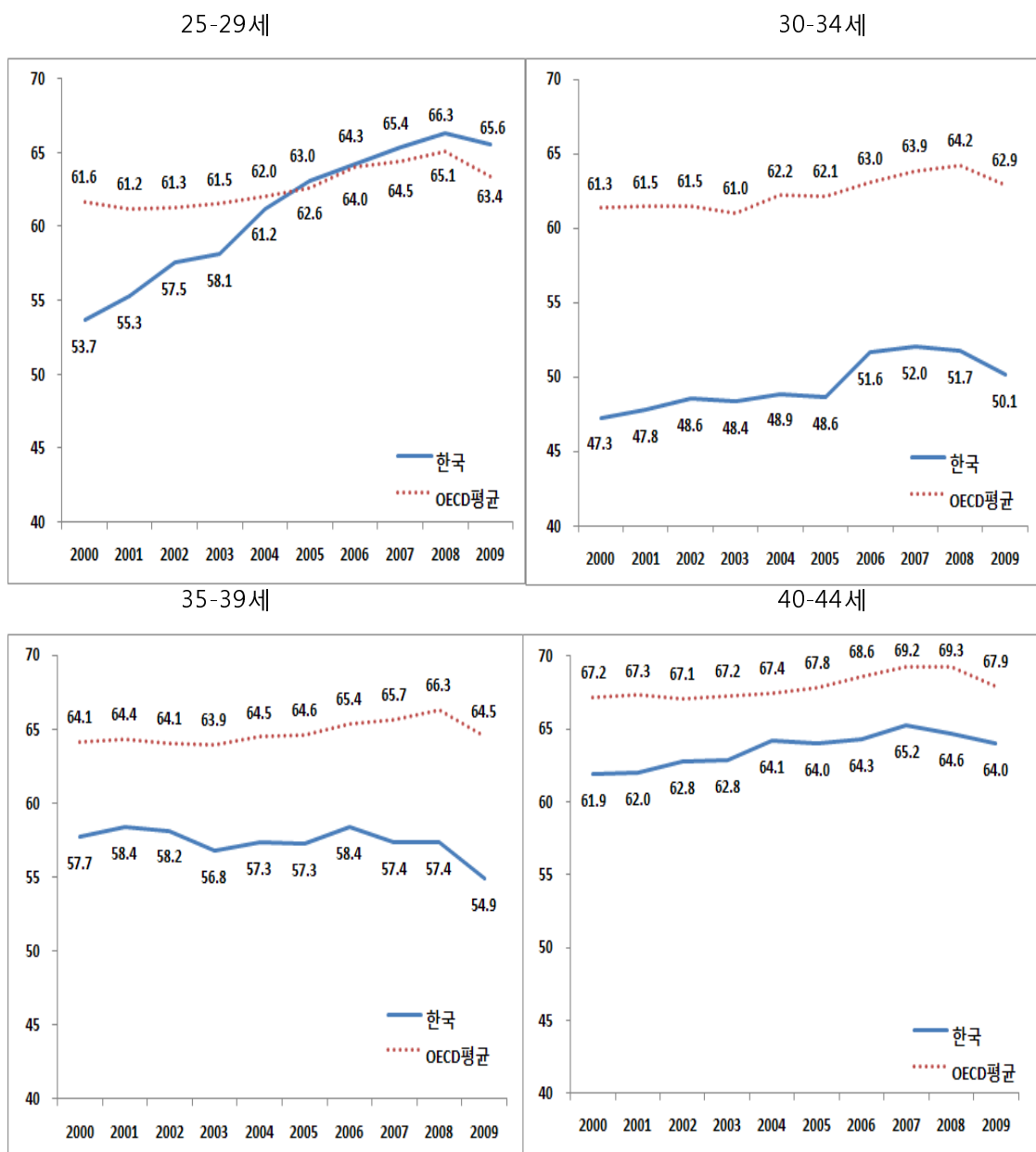
40대 초반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2000년 61.9%였던 40-44세 한국 여성 고용률은 2007년 65.2%까지 증가하였음. 으나, 200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64.0%로 나타남. 2009년 40대 초반 한

국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3.9%p 낮은 것으로, 30대 여성에 비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지 않음.

2009년 현재 OECD 회원국의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터키가 30.1%로 가장 낮게 나타남. 다음으로 한국과 멕시코의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50.1%로 낮게 나타남. 반면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등은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6> 한국의 25-44세 여성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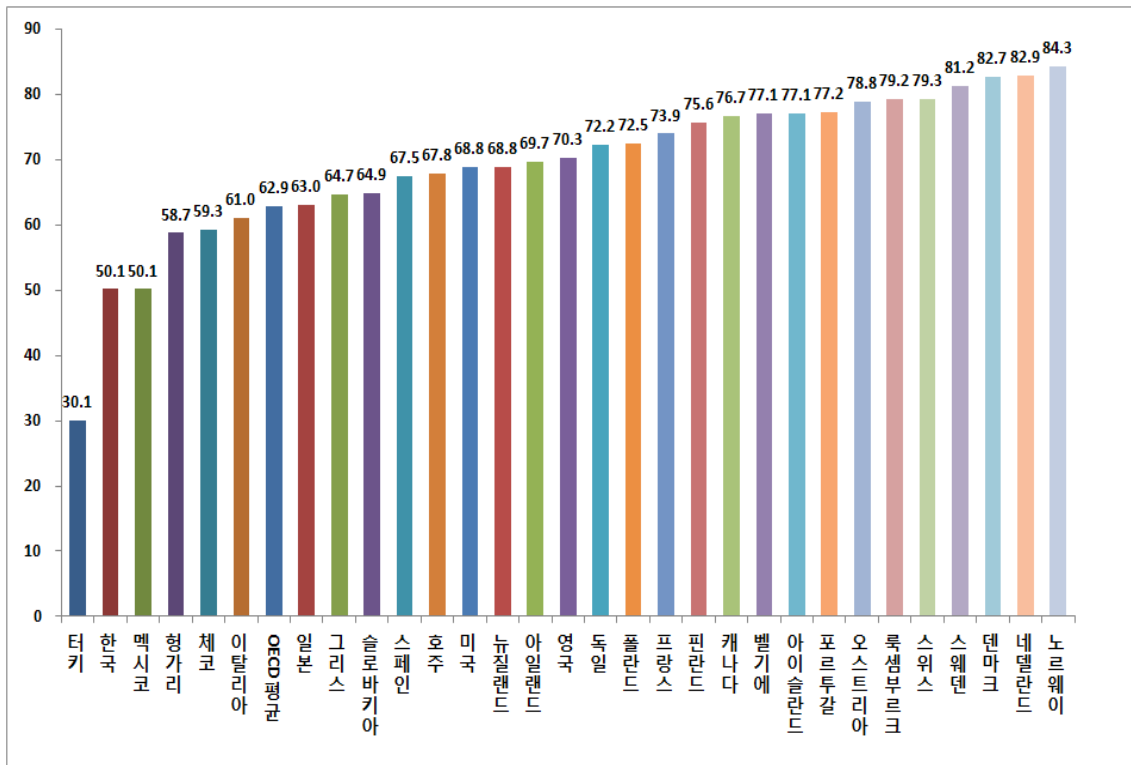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그림 7> 2009년 OECD 회원국의 30-34세 여성 고용률

(단위: %)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지난 10년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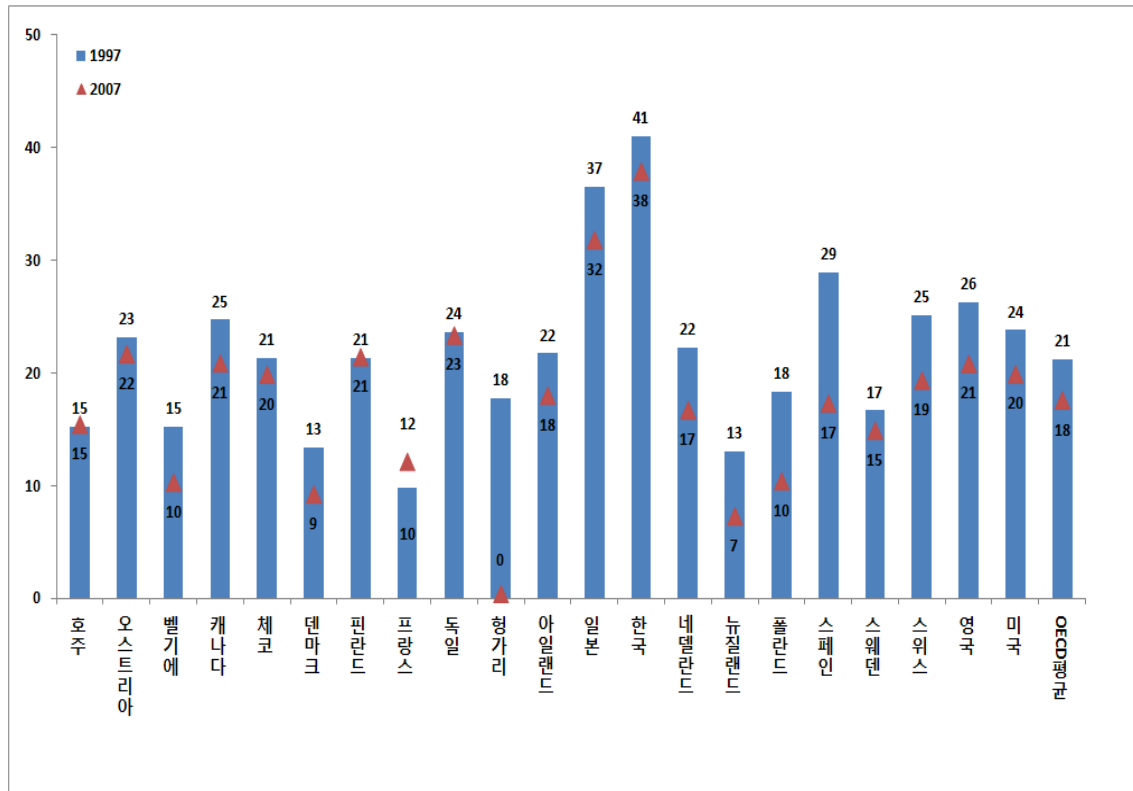
－ 한국 38%, 뉴질랜드·폴란드 10%

2007년 현재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으로 일본과 함께 성별 임금 격차가 30%대로 높게 나타남. 반면 헝가리, 뉴질랜드, 덴마크의 성별 임금 격차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벨기에와 폴란드의 성별 임금 격차도 10%로 낮게 나타났음.

1997년 당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41%였으나 2007년에는 38%로 3%p 감소하였음. 이것은 같은 기간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감소폭과 같은 것임. 1997년과 2007년 사이에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프랑스는 증가하였음. 그리고 같은 기간 호주와 핀란드의 성별 임금 격차는 변화가 없었음.

<그림 8>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1997-2007년

(단위: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 한국 여성과 남성 통근 시간, OECD 국가 중 가장 길어

－ 한국 남성은 약 1시간, OECD 평균은 약 30분

2000년대에 실시된 시간사용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OECD 국가 남녀의 통근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한국은 남녀 모두 통근시간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길게 나타났음. 한국 남성은 하루 평균 54분, 여성은 27분을 통근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일본의 남성과 여성이 각각 일일 평균 51분과 26분을 통근에 사용함. 반면 핀란드와 뉴질랜드 남성의 일일 평균 통근 시간을 18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음. 또한 뉴질랜드와 핀란드 여성의 일일 평균 통근 시간을 각각 11분과 14분으로 다른 OECD 회원국의 여성들에 비해 짧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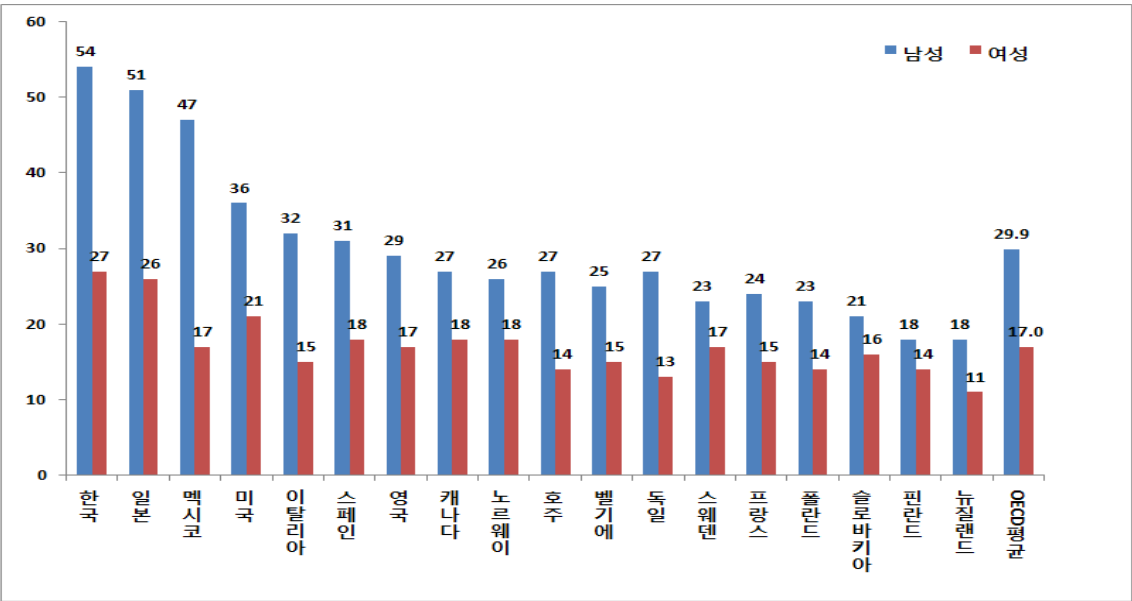
OECD 회원국 남성의 일일 평균 통근시간은 약 30분으로 나타났음. 한국,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남성 통근 시간이 OECD 회원국 남성의 일일 평균 통근시간보다 길게 나타났음. 반면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노르웨이, 벨기에, 폴

란드 등 국가 남성의 일일 평균 통근시간은 20분대로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일일 평균 통근시간이 남성에 비해 짧게 나타났음. OECD 회원국 여성의 일일 평균 통근시간은 17분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일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여성의 일일 평균 통근시간은 20분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9> OECD 주요 국가 남녀의 1일 평균 통근시간

(단위: 분)



자료: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II. 한국 여성은 건강한가?

○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평균 보다 길어

－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평균 보다 짧아

2008년 현재 OECD 회원국 남녀의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여성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는 터키 72세로 나타남. 반면 일본 여성의 기대수명은 86세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게 나타남.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오스트리아 등 11개 국가와 동일하게 83세로 나타남. 이것은 OECD 회원국의 여성 기대수명 82세보다 1세 많은 것임.

남성의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남성의 기대수명이 80세로 가장 길게 나타남. 그리고 헝가리 남성의 기대수명은 70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76세로 OECD 회원국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 77세에 비해 1세가 짧음.

1990년과 2008년 사이 OECD 회원국 남녀의 기대수명 변화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기대수명이 많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아이슬란드, 네델란드, 미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2년 연장되었음. 반면 터키와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10년과 7년으로 연장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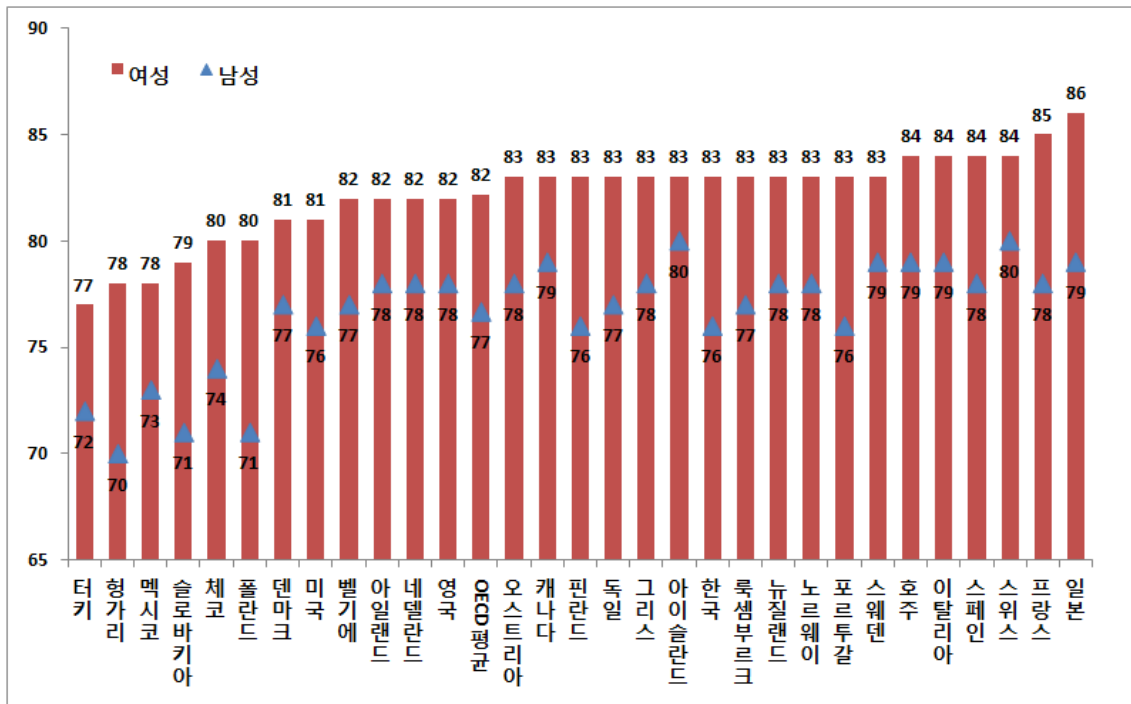
같은 기간 독일, 터키의 남녀 기대수명은 각각 5년과 10년씩 동일하게 연장되었음. 반면 그리스,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에서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1년 더 연장되었음.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에서는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에 비해 1~2년 정도 더 연장되었음.

2007년 현재 OECD 회원국 남녀의 건강기대수명을 살펴보면, 터키 여성의 건강기대수명이 67세로 가장 짧게 나타났음. 그리고 일본 여성의 건강기대수명은 78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게 나타났음. 한국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 여성의 평균 건강기대수명에 비해 1세 정도 많은 74세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헝가리 남성의 건강기대수명이 62세로 가장 짧게 나타났음. 그리고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남성 건강기대수명이 73세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길게 나타났음. 한국 남성의 건강기대수명은 68세로 OECD 남성 평균 건강기대수명에 비해 1세, 한국 여성의 건강기대수명에 비해 6세가 짧게 나타났음.

<그림 10> OECD 회원국 남녀의 기대수명: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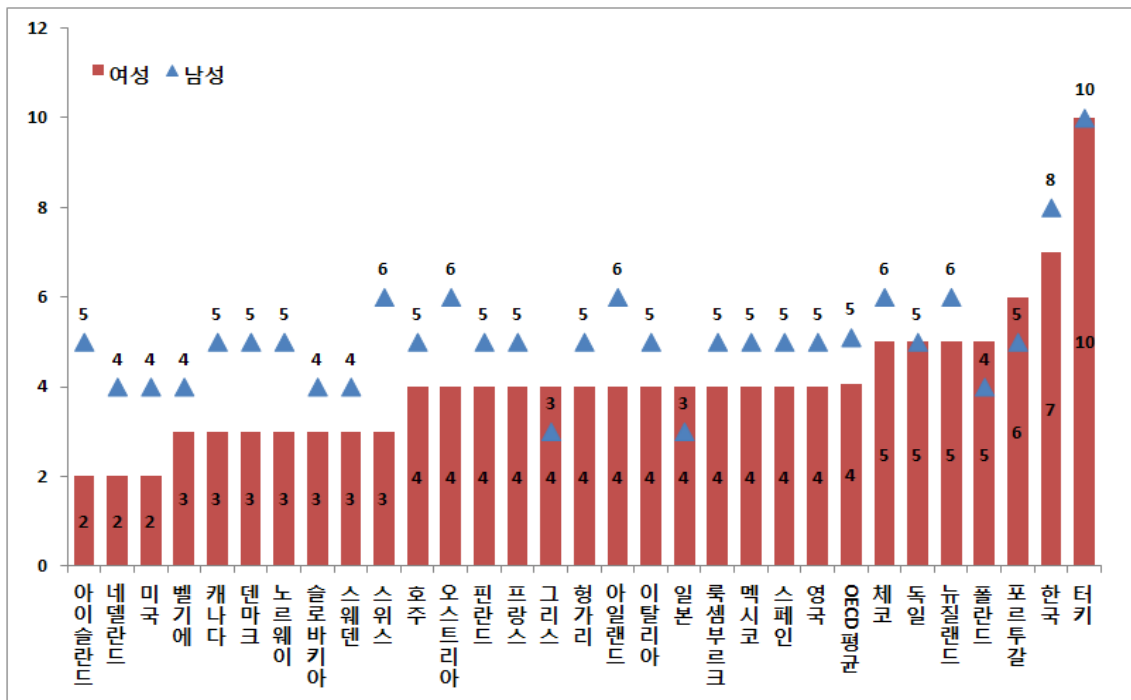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그림 11> OECD 회원국 남녀의 기대수명 변화: 1990-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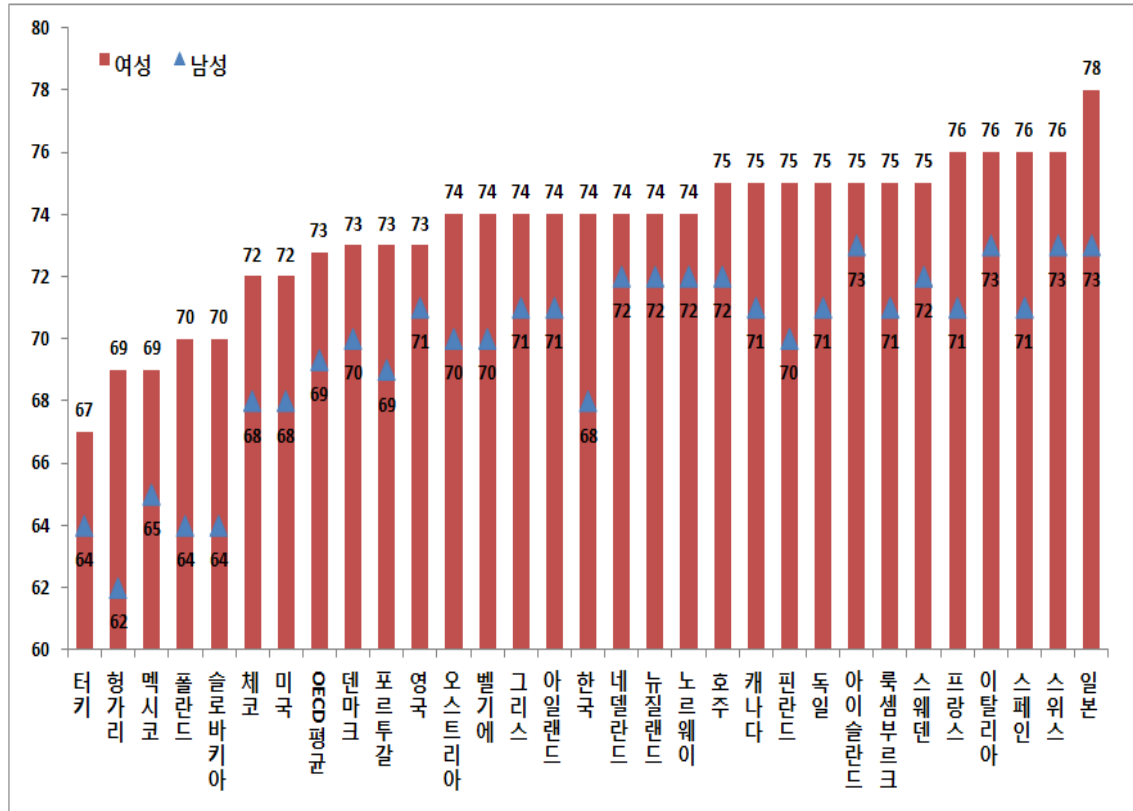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그림 12> OECD 회원국 남녀의 건강기대수명(HALE): 2007년

(단위: 세)



자료: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 한국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은 증가, OECD 회원국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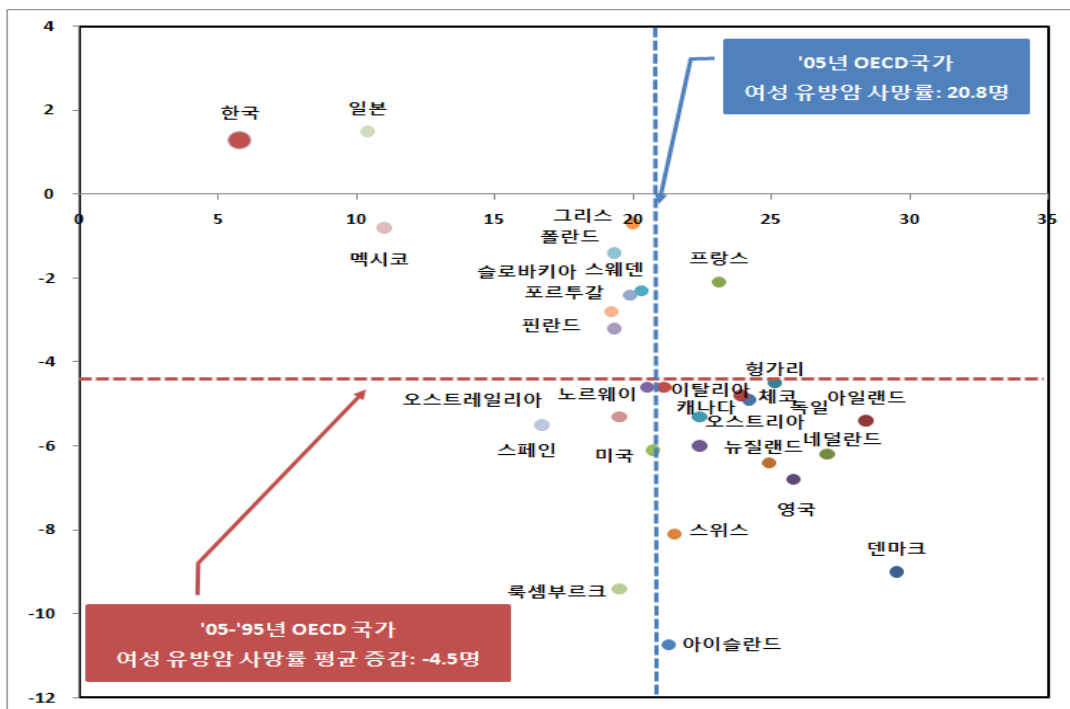
- '05년 한국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은 5.8명으로 가장 낮지만, 10년간 여성 유방암 사망률은 1.3명으로 증가

2005년 현재 OECD 회원국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5년 현재 덴마크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이 여성 인구 10만명당 29.5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아일랜드, 네델란드, 영국, 헝가리 등도 여성 유방암 사망률도 여성 인구 10만명당 25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한국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은 여성 인구 10만명당 5.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지난 10년간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아이슬란드의 경우, 1995년 32.0명이었던 여성 유방암 사망률이 2005년 21.3명으로 10.7명 감소하였음. 그리고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도 같은 기간 여성 유방암 사망률이 9명 이상 감소하였음. OECD 회원국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 평균 역시 같은 기간 25.3명에서 20.8명으로 4.5명 감소하였음. 반면 같은 기간 한국과 일본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한국 여성 유방암 사망률은 1995년 4.5명에서 2005년 5.8명으로 1.3명 증가함.

<그림 13> OECD 회원국 여성 유방암 사망률: 2005년

(단위: 명, 인구10만명당)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표 3> OECD 회원국의 여성 유방암 사망률: 1995-2005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1995	2000	2005	' 05-' 95증감
덴마크	38.5	33.4	29.5	-9.0
아일랜드	33.8	31.5	28.4	-5.4
네덜란드	33.2	30.6	27.0	-6.2
영국	32.6	28.2	25.8	-6.8
헝가리	29.6	30.5	25.1	-4.5
뉴질랜드	31.3	27.0	24.9	-6.4
체코	29.1	25.6	24.2	-4.9
독일	28.7	25.8	23.9	-4.8
프랑스	25.2	24.5	23.1	-2.1
오스트리아	28.4	25.4	22.4	-6.0
캐나다	27.7	24.3	22.4	-5.3
스위스	29.6	23.9	21.5	-8.1
아이슬란드	32.0	19.4	21.3	-10.7
이탈리아	25.7	23.6	21.1	-4.6
OECD 평균	25.3	22.7	20.8	-4.5
미국	26.8	23.1	20.7	-6.1
오스트레일리아	25.1	21.1	20.5	-4.6
스웨덴	22.6	21.2	20.3	-2.3
그리스	20.7	19.8	20.0	-0.7
슬로바키아	22.3	24.4	19.9	-2.4
노르웨이	24.8	22.5	19.5	-5.3
룩셈부르크	28.9	25.6	19.5	-9.4
핀란드	22.5	20.8	19.3	-3.2
폴란드	20.7	19.4	19.3	-1.4
포르투갈	22.0	20.0	19.2	-2.8
스페인	22.2	18.6	16.7	-5.5
멕시코	11.8	10.7	11.0	-0.8
일본	8.9	9.7	10.4	1.5
한국	4.5	4.9	5.8	1.3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높고, 증가하는 중

- '95년과 '05년 사이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1.5명 증가, OECD 평균은 1.0명 감소

2005년 현재 OECD 회원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5년 현재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 11.4명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여성 인구 10만명당 6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4.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아이슬란드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0.6명을 가장 낮게 나타남.

지난 10년간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 변화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높은 자궁경부암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6.3명 감소하였음.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2.3명 감소하였음. OECD 회원국 여성의 평균 자궁경부암 사망률도 같은 기간 1.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같은 기간 1.5명 증가하였음. 한국은 같은 기간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 변화가 없었던 핀란드를 제외한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증가한 국가임.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4> OECD 회원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 1995-2005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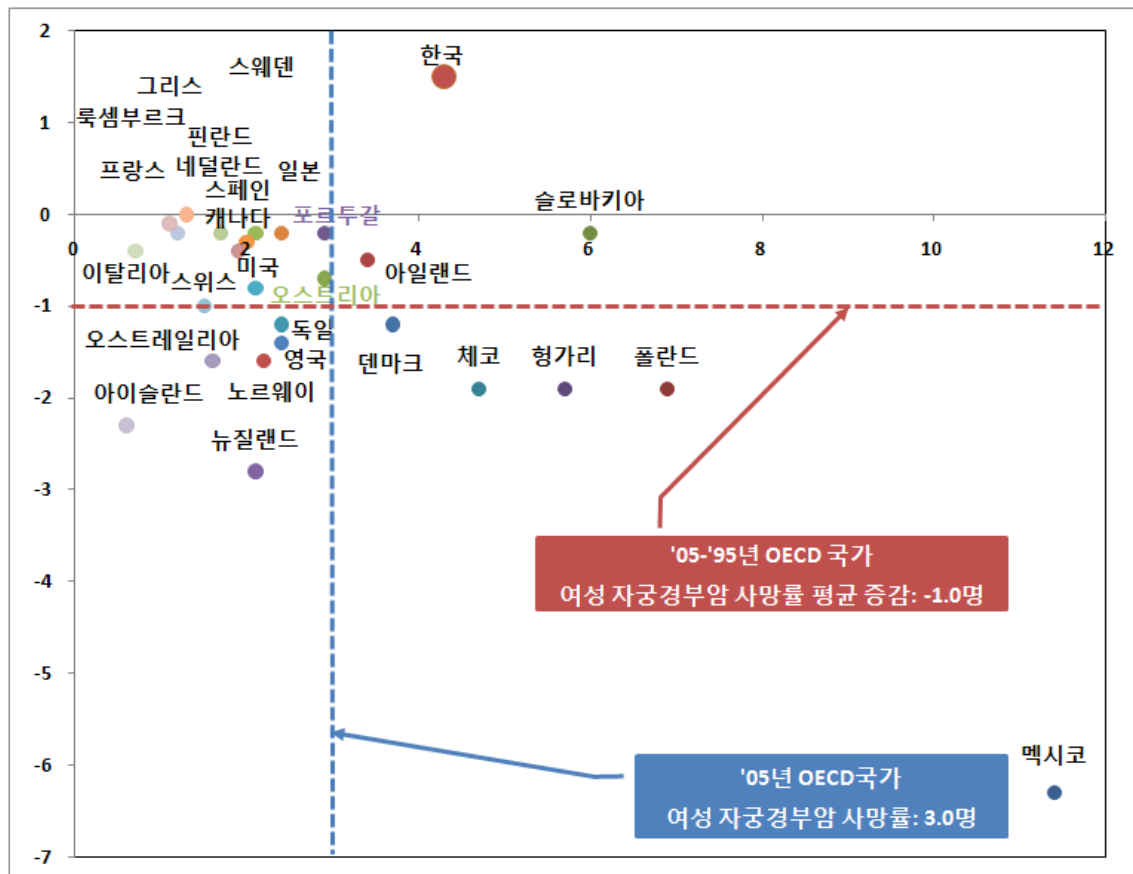
	1995	2000	2005	'05-'95증감
멕시코	17.7	14.5	11.4	-6.3
폴란드	8.8	8.2	6.9	-1.9
슬로베니아	6.2	6.8	6.0	-0.2
헝가리	7.6	6.7	5.7	-1.9
체코	6.6	5.2	4.7	-1.9
한국	2.8	3.4	4.3	1.5
덴마크	4.9	3.8	3.7	-1.2
아일랜드	3.9	3.1	3.4	-0.5
OECD 평균	4.0	3.5	3.0	-1.0
오스트리아	3.6	2.3	2.9	-0.7
포르투갈	3.1	3.2	2.9	-0.2
독일	3.6	3.0	2.4	-1.2
일본	2.6	2.5	2.4	-0.2
영국	3.8	2.9	2.4	-1.4
노르웨이	3.8	3.3	2.2	-1.6
네덜란드	2.3	2.4	2.1	-0.2

뉴질랜드	4.9	3.0	2.1	-2.8
미국	2.9	2.5	2.1	-0.8
스웨덴	2.3	2.5	2.0	-0.3
캐나다	2.3	2.1	1.9	-0.4
스페인	2.3	2.2	1.9	-0.4
프랑스	1.9	1.7	1.7	-0.2
오스트레일리아	3.2	2.3	1.6	-1.6
스위스	2.5	1.6	1.5	-1.0
핀란드	1.3	2.0	1.3	0.0
룩셈부르크	1.4	1.7	1.2	-0.2
그리스	1.2	1.4	1.1	-0.1
이탈리아	1.1	0.8	0.7	-0.4
아이슬란드	2.9	2.4	0.6	-2.3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그림 14> OECD 회원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 2005년

(단위: 명, 인구10만명당)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 한국의 제왕절개율,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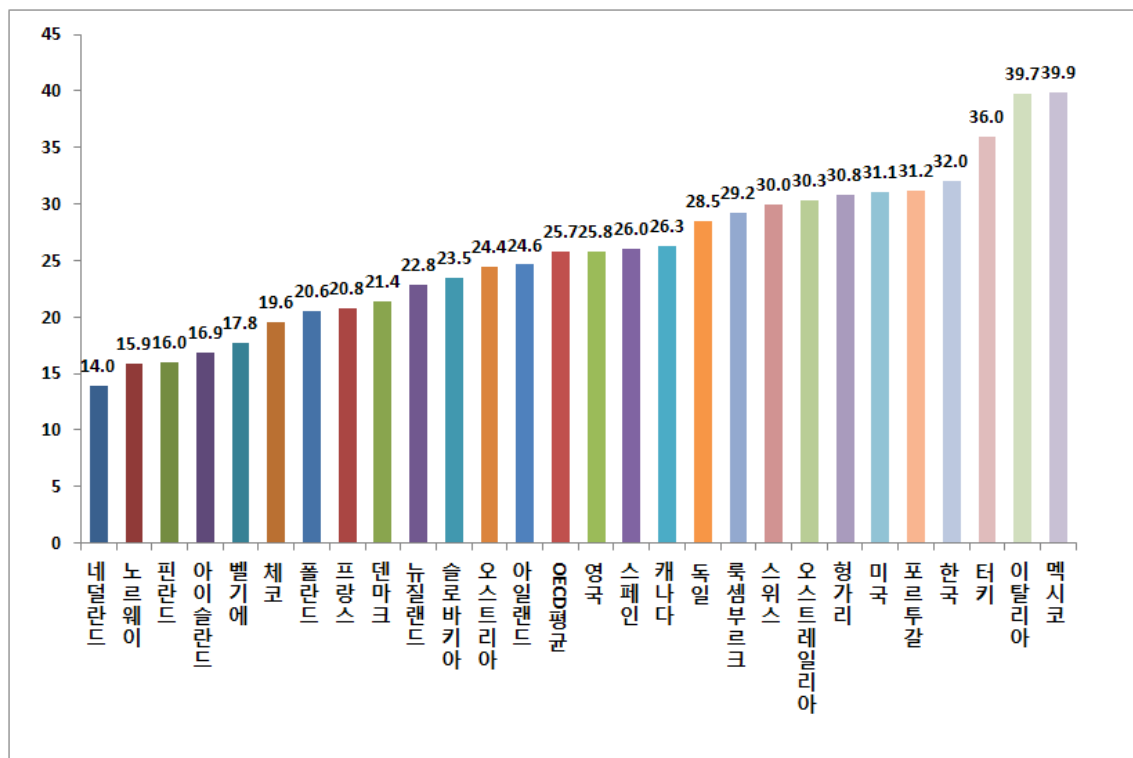
－ '07년 OECD 회원국의 제왕절개율은 25.7%, 한국은 32.0%

2007년 현재 OECD 회원국의 생존 출산 100명 당 제왕절개율은 다음과 같음. 제왕절개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 14.0%로 나타남. 그리고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벨기에, 체코 등도 생존 출산 100명 당 제왕절개율이 20% 미만을 낮게 나타남.

반면 멕시코의 제왕절개율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이탈리아의 제왕절개율이 39.7%로 높게 나타남. 한국의 제왕절개율은 32.0%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OECD 평균에 비해 6.3%p, 네덜란드의 제왕절개율이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임.

<그림 15 > 2007년 생존 출산 100명당 제왕절개율

(단위: %)



자료: OECD, Health Data 2009.